

전북현대, 전주서 K리그1 우승 미디어데이

‘우승 히어로’ 이승우 “화도 많이 났다”

한 시즌 마음고생 털어놔
“묵묵히 이어온 게 결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밝혀

전진우 “득점왕 되겠다”
송범근, 개인상 욕심내기도

“당연히 좋은 감정만 있었던 건 아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의 조기 우승에 ‘슈퍼 조커’로 크게 기여한 이승우(27)가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냈다.

전북은 오는 8일 오후 4시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전북의 리그 성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기다. 지난달 18일 수원 FC를 꺾고 조기 우승한 까닭이다. 이에 전북은 지난 5일 홈 경기장에서 K리그1 우승 미디어데이를 진행하면서 조금 일찍 한 시즌을 되돌아봤다.

지난 시즌 구단 역사상 첫 승강 플레이오프(PO)까지 갔던 전북을 한 시즌 만에 180도로 바꾼 거스 포엣(우루과이) 감독과 이를 옆에서 보좌한 ‘주장’ 박진섭(30) 등이 자리해 우승 소감을 전했다.

또 이번 시즌 주전보다는 교체 멤버로서 우승에 힘을 보탠 이승우도 한 해를 돌아봤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한때 ‘코리안 메시’로 불렸던 이승우는 소속팀에서 주목받았던 선수다.

해외와 국가대표 출신답게 ‘강호’ 전북에서도 이름값이 가장 높은 선수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에는 리그 22경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의 전진우, 이승우, 송범근.

〈사진=전북현대 제공〉

기에 나서 3골1도움에 그쳤고, 대부분 교체로 소화했다.

대신 존재감은 확실했다. ‘슈퍼 조커’, ‘언성 히어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체로 들어가 분위기를 바꿀 때가 많았다. 포엣 감독도 공개적으로 이승우의 존재감을 높이 산 바 있다.

이승우는 “(교체 멤버로 뛰는 게) 쉽지 않았던 시즌이다. 힘들었지만, 선택은 감독님의 몫이니 선수끼리는 잘 지냈다”면서 “당연히 감독님께 좋은 감정만 있었던 건 아니다. 화도 났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스스로 잘 준비해, 기회가 올 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하루 묵묵히 이어온 게 (우승이라는 결과로)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아시아 최고의 팀이다. 전북에 온 이유도 우승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1년 만에 바랐던 게 이루어져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라며 “올해뿐 아니라 전북에

남아있는 동안 매년 느끼고 싶은 행복한 감정이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더 발전한 모습을 예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승우뿐 아니라 공격수 전진우와 수문장 송범근도 참석했다.

전진우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5골을 넣으면서 전북의 공격을 이끌었다. 리그 득점 순위 1위인 수원 FC 싸박(17골)에 2골 밀린 득점 공동 2위다.

송범근은 이번 시즌 물오른 선방쇼를 자랑했고, 그 덕에 전북은 6일 현재 30실점만 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다.

이승우는 이번 우승에 이들의 지분을 묻는 말에 “전진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송범근도 무실점도 많이 했다. 50대 50이라고 생각한다”며 “난 시합에 많이 못 뛰었다. 우승에 중요한 건 골 넣는 사람과 막는 사람이다. 두 선수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동료들을 칭찬했다. 이를 들은 전진우는 자신감에 힘

입어 득점왕까지 욕심냈다.

다만 포엣 감독이 페널티킥 키퍼로 지정하거나, 골을 넣을 수 있게 수비 역할을 빼준거나 하는 등의 ‘밀어 주기’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진우는 “감독님이 날 득점왕으로 밀어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며 “수비를 안 하면 바로 (선발에서) 빠진다. 요즘은 골보단 수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뛰다”며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송범근은 연말 진행되는 K리그1 시상식에서 베스트11 골키퍼 부문 수상을 노린다.

지금까지 송범근은 K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로 활약했으나, 매년 조현우(울산 HD)에게 밀렸다.

올해는 울산이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전북이 우승해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에 송범근은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는 개인상을 받고 싶다”며 “기대된다. 끝까지 잘해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뉴시스



대학축구 U리그 1부 진출을 확정지은 전주기전대학 축구부.

〈사진=전주기전대학 제공〉

대학축구 U리그 1부 진출

전주기전대 축구부, 2부리그서 총 12경기 10승으로 1위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 축구부가 대학축구 U리그 1부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대학축구 U-리그(2부)는 지난 4월 18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총 12경기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전주기전대 축구부는 9관역 최종전에서 청운대를 7대 1로 이기면서 총 12경기 10승 1무 1패의 우수한 성적으로 1위에 올랐다.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학 U리그에 전국 80여 개가 넘는 대학이 참가하며, 기존 권역별 리그가 아닌 참가 팀을 1부와 2부로 나눠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등급 기준은 전년도 2부 리그 우승팀이 올라가는 구조다. 1부 36팀, 2부 42개 팀으로 나눠 연중 리그를 치른다.

대학축구 U-리그 통합 득점왕 2위를 차지한 왼쪽 공격수 2학년 이유석(LW)은 “너무 좋은 팀 분위기가 동료들의 활약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올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성적이 프로 팀으로의 진출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체육교육지원팀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 “우리 대학 축구부를 지원하는 교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경기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경복 감독은 “올 한 해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팀워크 덕분에 2부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 1부에서도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탁구대회’

9일까지... 1000여명 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9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탁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달여간 진행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17개 시·도에서 학생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학교체육 행사로, 종목별로 분산 개최된다.

17개 시·도를 대표해 참가하는 팀들은 학교스포츠클럽 소속 일반학생들이다.

전북특별자치도탁구협회(회장 신정현), 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탁구대회는 전국 각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88팀, 1,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관계자가 참가한다.

세부적으로는 △남초부 16팀 △여초부 15팀 △남중부 16팀 △여중부 14팀 △남고부 16팀 △여고부 11팀 등 6개 부문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관객 모두가 스포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체험 부스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익산 백제왕도 문화 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을 제공, 전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시 찾고 싶은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지역의 문화를 연결고리로 학생들의 인성과 체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자율적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합동준비단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망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준비단을 출범한다.

문체부는 6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

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준비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준비단 1차 회의는 이날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린다.

내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는 90여개국 선수단 5,000여명이 출전한다. 내년 3월 6일부터 15일까지 벌어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는 50여개국 선수단 6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

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뉴시스

2023. 1. 1 시행

순창 고향사랑 기부제

축! 전주매일 창간

순창
창작다

순창군

순창 고향사랑 기부 어렵지 않아요!

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이 아닌 국민 누구나

얼마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기부 불가)

언제?

2023. 1. 1 부터

어떻게?

온라인 : 검색창에 “고향사랑 e음”
오프라인 : 농축협 및 농협은행

기부혜택은

세액공제 + 담례품

뭐하는데?

지역민의 복리증진 사업 추진

순창군 답례품은!

농축산물

쌀, 농특산물꾸러미, 옥광밤, 딸기, 블루베리, 두릅, 양봉, 화분, 쌈채소

가공식품

순창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수제한과, 강정, 참두를 장아찌, 나물박치트, 청국장집

서비스(상품권 등)

순창사랑상품권, 발초대행서비스 이용권, 권역 숙박시설 이용권, 장내 미생물 검사키트, 실랜드 방갈로 숙박권

내 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순창 고향사랑 기부로
함께해 주세요!



NH 농협

농협중앙회순창군지부장 신중철
순창농업협동조합장 김성철
동계농업협동조합장 양준섭
구림농업협동조합장 김순용
서순창농업협동조합장 설득환